

## 제48회 현충일 추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마흔여덟번째 현충일을 맞아 나라와 겨레를 위해 거룩한 희생을 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고 명복을 빕니다. 젊은 청춘을, 천금보다 귀한 혈육을 호국의 제단에 바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충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애국선열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은 물론 가족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일제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자존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6·25전쟁 때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국민의 생명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다시 한번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라크 전쟁과 북핵 문제, 한·미 관계, SK글로벌 사태, 사스 공포와 같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열들의 가호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지혜롭게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안보와 경제위기의 먹구름은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지난 100일은 이러한 당면과제의 해결과 함께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참여정부 5년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사이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 장관과 실무자간에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새로운 국정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존중과 당정분리의 원칙도 확고히 세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왕적인 대통령', '밀실인사', '공작정치'의 폐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민생활의 주름살이 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간 협력의 정치도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을 힘이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원칙과 설득을 통해서 풀어 가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애국영령들 앞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경제를 챙기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개혁도 쉬지 않고 해 나가겠습니다. 북핵 문제도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호국영령들의 뜻을 받드는 최우

선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와 건강한 사회문화를 뿌리내리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북아 경제중심', '지역균형발전' 과 같은 참여정부의 국정 청사진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더 많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일본 국민방문 길에 오릅니다. 현충일인 오늘 일본을 방문하게 된 데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의 족쇄에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불행했던 과거를 교훈 삼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과 작년의 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 상호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두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이자 투자유치국입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도 두 나라간 공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열들은 일제의 폭압에 끊임없이 저항하면서도 결코 배타적이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독립과 함께 동양평화, 세계평화를 꿈꾸었습니다. 저는 이번 방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제·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약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약소민족으로서 겪어야 했던, 그래

서 수많은 애국선열들의 피와 눈물을 요구했던 변방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은 선열들의 간절한 바람이자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동북아 중심국가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힘을 모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선열들께서 우리의 노력을 지켜보며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먼저 가신 임들의 영전에 한없는 감사와 추념의 정을 담아 명복을 빕니다.